

2. [논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3학년 : 이 현(팀장), 안지영

2학년 : 박주환(부팀장), 오병민, 이재민, 송은수, 윤여빈

1학년 : 이창수, 옹승지, 노상미, 선지성, 안정아

지도 교수 : 김정화 교수님

# 목 차

요약문 .....	
<b>I. 서론 .....</b>	<b>11</b>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의 목적 .....	12
<b>II. 이론적 배경 .....</b>	<b>13</b>
1.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 .....	14
2. 장애 대학생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	17
<b>III. 연구 방법 .....</b>	<b>21</b>
1. 연구내용 .....	21
2. 조사대상 .....	21
3. 조사내용 및 측정 도구 .....	21
4. 분석 방법 .....	24
<b>IV. 분석 결과 .....</b>	<b>25</b>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5
2. 장애 대학생의 진로 결정 상태 .....	28
3.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 .....	29
4. 장애 대학생의 취업 계획 .....	31
5. 장애 대학생의 취업 과정 .....	34
6.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도 .....	36
7.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	39
8.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도 .....	46
9.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 .....	55
10.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의 차이 .....	67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  
..... 70

**V. 논의 및 결론**

1. 결론 및 제언 ..... 73

2. 의의와 한계점 ..... 75

**참고문헌** ..... 76

**부록** ..... 77

## 표 목 차

〈표 1〉	교육부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 평가 시 실태조사에 의거 : 2017. 9.1	13
〈표 2〉	거점 대학 운영 교육 프로그램	19
〈표 3〉	장애 대학생 진로 · 취업 사업 권역별 거점 대학 6곳 선정	20
〈표 4〉	조사내용 요약	22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	25
〈표 6〉	장애 대학생의 진로 결정 상태	28
〈표 7〉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 여부	29
〈표 8〉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파악	29
〈표 9〉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30
〈표 10〉	취업할 계획의 여부	31
〈표 11〉	전공 무관한 직무	31
〈표 12〉	바로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32
〈표 13〉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계획의 여부	32
〈표 14〉	전공을 살린 취업	32
〈표 15〉	전공을 살리지 않은 이유	33
〈표 16〉	장애 대학생의 취업 정보 수집	34
〈표 17〉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34
〈표 18〉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제일 걱정 되었던 점	35
〈표 19〉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36
〈표 20〉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경로	36
〈표 21〉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	37
〈표 22〉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	37
〈표 23〉	추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38
〈표 24〉	장애 학생 기업 연수	39
〈표 25〉	자격증 취득	39
〈표 26〉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40
〈표 27〉	취업특강	40

<표 28>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	41
<표 29>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역량 강화, 진로 설정) .....	41
<표 30>	진로 · 취업 관련된 상담 .....	42
<표 31>	멘토링 .....	42
<표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	43
<표 33>	취업 지원 프로그램별 평균 도움 정도 요약 .....	44
<표 34>	취업캠프 .....	46
<표 35>	취업 성공 패키지 .....	46
<표 36>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	47
<표 37>	취업특강 .....	47
<표 38>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	48
<표 3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	48
<표 40>	장애 학생 기업 연수 .....	49
<표 41>	대인관계 기술 .....	49
<표 42>	자격증 취득 .....	50
<표 43>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	50
<표 44>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가장 어려웠던 점 .....	51
<표 45>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장애인 편의 지원 만족도 .....	51
<표 46>	추후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할 의향 .....	52
<표 47>	추후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어떤 주제로 참여하고 싶은 이유 .....	52
<표 48>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평균의 필요성 정도 요약 .....	53
<표 49>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	55
<표 50>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	55
<표 51>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서 고민이다 .....	56
<표 52>	내 적성에 맞는 진로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다 .....	56
<표 53>	취업 준비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	57
<표 54>	내 의지와는 반대로 부모님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는 것이 불만이다 .....	57
<표 55>	현재 계획 중인 진로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 힘들다 .....	58
<표 56>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	58

<표 57>	원하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다	59
<표 58>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59
<표 59>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60
<표 60>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	60
<표 61>	취업을 위한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61
<표 62>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61
<표 63>	내가 계획하는 진로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민이다	62
<표 64>	진로 준비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는지에 잘 몰라서 답답하다	62
<표 65>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막막하다	63
<표 66>	진로에 대비하여 어떤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63
<표 67>	진로와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다	64
<표 68>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64
<표 69>	진로 스트레스 요약	65
<표 70>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의 차이	67
<표 71>	성별 진로 스트레스 차이	68
<표 72>	학년별 진로 스트레스 차이	68
<표 73>	장애 유형별 진로 스트레스 차이	69
<표 74>	장애 정도 진로 스트레스 차이	69
<표 75>	성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차이	70
<표 76>	학년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차이	70
<표 77>	장애 유형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차이	71
<표 78>	장애 정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차이	72

## 요 약 문

### I. 서 론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조사 방법인 설문지를 통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취업 준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 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장애 대학생들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의 졸업 이후, 취업률은 35.3%로 비장애에 대학생의 취업률인 67.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고등교육의 진학이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 II. 이론적 배경

장애 대학생 진로 · 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등으로 장애 대학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장애 대학생의 진로 · 취업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 대학생의 맞춤형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한다.

장애 대학생은 2021년 9,826명, 2022년 9,83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2022년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 사항이 다른 데다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장애 대학생의 취업률은 약 40%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도 42.37%, 2016년도 45.33%, 2017년도 35.33%로 취업률이 저조하고 최근의 취업률은 3명의 졸업생 중 1명 정도의 장애 학생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장애인 대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의 어려움과 같은 개념들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에서 바라본 각각의 항목들에 관한 결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아가 취업 준비 시 겪는 진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III. 연구내용 및 조사 방법

첫째, 본 연구의 내용은 서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 기사이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장애 대학생의 취업 어려움 등등을 제시하는데 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의가 있다. 이 3장에서는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측정 도구, 분석 결과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둘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1: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및 기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준비 과정’, ‘진로 스트레스’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관한 것을 핵심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까지 포함하여 총 23문항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200명이며, 온라인 설문지를 통하여 장애 대학생들에게 설문지 배부하였다. 그 결과 응답한 총 171명인 장애 대학생들에게 다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셋째, 설문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였다.

### IV. 분석 결과

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으로 진행하였으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학년 4학년까지의 재학생들이 응답해주었다.

첫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는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남성은 평균 3.63점(표준표차 = 1.47)이므로 여자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실질적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어 학년별 중에서 1학년이 평균 44.1점(표준편차=7.21)이므로 제일 높게 나왔지만, 역시나 실질적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 유형별 중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이 평균 72.45점(표준편차 = 20.54)이므로 가장 높게 나왔다. 장애 정도는 경증보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이 평균 63.45점(표준편차 = 22.32)이므로 가장 높게 나왔다.

둘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의 차이는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보다 비참여자가 평균 90.17점(표준편차 = 18.38)이므로 가장 진로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진로 스트레스의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4.90점(표준편차 = 22.31)이므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실질적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별 중에서 4학년이 평균 66.14점(표준

편차 = 10.76)이므로 가장 높게 나왔다.

장애 유형별 중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이 취업 준비할 때 평균 72.45점 (표준편차 = 20.54)이므로 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게 받고 있지만, 장애 정도는 경증보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평균 63.42점(표준편차 = 22.32)이므로 높게 나왔지만, 역시나 똑같이 실질적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평균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점 중에 평균 37.64점 (표준편차 = 10.97)이므로 현재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도 평균 또한 45점 중 평균 37.15점 (표준편차 = 10.8)으로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보다는 장애 학생들이 취업 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느껴진다. 또한 지원을 해주는 센터 또한 현시대에 맞는 홍보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도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진로 스트레스 평균은 100점 중 평균 62.37점(표준편차 = 31.19)으로 현재 장애 대학생이 취업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진로 스트레스가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준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 대학생들은 혼자 취업 준비할 때 취업에 필요한 정보 없이 취업을 준비하려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해 강사님과 1:1로 지도를 받아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1 진로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원하는 곳에 취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방법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해 자격증 취득, 대인관계 기술, 이력서 작성하는 법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장애 대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대인관계 기술,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 제일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부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대인관계 기술, 이력서 작성에 관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설해야 하고, 더 활성화한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취업지원프로그램 비참여자의 진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성(후기)을 SNS,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비참여자가 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보다 비참여자가 진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비참여자는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멘토링,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등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1. 서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장애 대학생들은 장애로 인한 제한된 초기경험으로 인해 진로 정체성이 제한적이며, 직업 획득에 대한 상반된 감정을 갖거나, 제한된 직업정보로 비현실적인 직업포부를 가질 가능성이 크며,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옥인, 2014)

또한 장애 대학생의 취업 욕구 역시 비장애 대학생 못지않게 높으며, 취업에 장애 유형이나 장애의 정도가 방해요인이 된다고 인식함으로써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진로 스트레스가 진로 발달의 중요 요소인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저하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김진경, 청원철 2014)

강병호와 원종례(2017)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한 장애 대학생의 취업률은 현재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상당 부분의 장애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요구하는 일자리 마련을 못 하는 실정이다. 장애 대학생의 취업 관련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를 2016년 5월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고용률 59.7%로 나타나 있다(15세 이상 인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6.12). 실제 취업률 분석해 보면 많이 낮을 것으로 추론되고 취업률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장애 대학생들의 중요한 관심들 가운데 한 가지인 진로에 관한 관심은 미흡하다. 특히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 재학 중 충분한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대졸자 수의 증가와 대졸자 일자리 감소 등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에 속하는 대졸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신혜숙 외, 2012), 비장애인들과 비교하여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취업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라경와 이미선, 김영애, 이명주, 강종구 2014)

또한 장애 대학생들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의 졸업 이후 취업률은 35.3%로 비장애 대학생의 취업률인 67.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어 고등교육의 진학이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민아, 윤가애, 성지민, 강은선 2022)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장애인들이 질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의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작 장애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대부분 대학교에서 30명 미만의 장애 대학생이 소속되어 있고, 장애 대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는 67개로 상대적으로 적어서 장애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 필요성이 부각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많은 장애물을 경험하는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의 지원이 진로 선택 과정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대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김민아, 윤가애, 성지민, 강은선 2022)

매년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지만, 매년 상반기 하루만 진행되며, 박람회 장소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인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장애인이 박람회에

가기 위해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애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현실은 현대사회에서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공영환, 2018)

이로 인해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과 연구생들은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수준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장애 대학생이 느끼는 진로 스트레스 및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느 수준이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는 취업 준비할 때 진로 스트레스에 얼마나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필요도, 진로 스트레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진로 특성 등에 관한 문항을 얼마나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필요도, 진로 스트레스 평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

#### 1) 장애 대학생 현황

장애인 단체와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특수 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학습권 등을 보장해달라는 제대로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다. 대학(원)에 진학 중인 장애 대학(원)생은 2018년 9,345명에서 2019년 9,653명, 2020년 9,717명, 2021년 9,826명, 2022년 9,83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학별 장애 학생 지원센터 등이 맡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 사항이 다른 데다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2) 장애 대학생 취업률

장애 대학생의 취업률은 약 40%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최근 3년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401개 대학에서 살펴보면 2015년도 42.37%, 2016년도 45.33%, 2017년도 35.33%로 취업률이 저조하고 최근의 취업률은 3명의 졸업생 중 1명 정도의 장애 학생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장애 대학생 취업률을 알아보기 위해 <표 1> 와 다음과 같다.

<표 1> 교육부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 평가 시 실태조사에 의거 : 2017. 9.1

구분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률
2015	1,747명	752명	108명	45.37%
2016	1,913명	734명	122명	45.33%
2017	2,020명	830명	103명	35.33%

### 3) 장애 대학생의 진로 · 취업 어려움

#### (1) 제한적인 진로 및 취업 선택에 대한 위축감

첫째, 장애로 인한 업무의 제약이다. 장애 대학생과 취업자 모두 장애나 신체적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하는 진로나 취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장애로 인한 업무의 제약은 시간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에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로 및 취업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이 중요하거나 사람들과의 소통이 주된 업무가 되는 영업이나 마케팅, 언론 분야의 진로를 제외하였고, 시각장애인 참여자들은 운전하거나 시각적 판단이 중요한 업무의 진로는 포기하였다. 또한 소근육 움직임이나 손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들은 미세한 손기술이 중요한 업무는 가능한 진로 선택지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장애로 인한 업무의 제약은 가능한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자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적 장애물이 되었다.

둘째,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진로 개척의 어려움이다. 장애 대학생 참여자들은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함을 넘어서 장애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전공 및 진로 분야에서 장애인 취업자의 선례가 없어 자신의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맞는 진로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 시 장애로 인해 어떤 불리함이 작용될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은 없을지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진로 분야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물리적 접근성이나 고용 환경과 같은 많은 변화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토로하였다. 한 장애 대학생 참여자는 장애인으로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직업에 도전하는 선례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비슷하게 취업자 참여자들 또한 장애와 직무의 적합성이 높은 것이 장기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진로와 직무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공유하였다. 진로에 대한 이들의 막막함은 장애인으로서 근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장벽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한 소극적인 진로 탐색이다. 장애 대학생과 취업자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자신감이 낮아졌고, 원하는 진로 및 취업 활동을 하는 데 소극적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고, 장애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우려하여 취업 스터디나 면접 캠프와 같은 진로 및 취업 활동의 기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등이 심리적 어려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와 자신감 저하는 적극적인 진로 탐색을 포기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취업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경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 (2) 가증되는 취업 준비의 어려움

첫째, 일관성 없는 장애인 고용 기회이다. 장애 대학생과 취업자 모두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기관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지만,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고용의 기회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모든 기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특별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경쟁하여 채용될 수 있는 관측을 일자리의 기회가 적으며, 장애인 특별전형이 있는 기관도 채용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용인원도 일정하지 않아서 원하는 진로나 취업처를 선택하는 것에 큰 제약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선례가 많은 공공기관을 민간 기업보다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장애인 취업 관련 정보의 부족이다. 장애 대학생과 취업자 모두 비장애인들에 비해 장애인들의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취업 정보를 접근하고 수집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기업에서 공지하는 일반 전형의 채용 과정에 비해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특별 전형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이른바 ‘깜깜이 전형’이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관심 있는 기업이나 회사에 장애인 채용 전형에 대한 문의를 직접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문의를 하여도 장애인 채용 전형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답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리함을 느꼈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셋째, 진로 탐색 및 취업 활동에 대한 학습지원 부재이다. 장애 대학생 참여자들은 학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이외에도 현재 진로 탐색 및 취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서류시험 준비 등을 위한 추가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교과목 수강을 지원하는 교내 학업 지원 서비스에는 매우 높은 만족을 보였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학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참여자는 교재를 시각장애인용으로 변환하기 어려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이 어려웠고, 청각장애인 참여자는 자막 서비스가 없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시청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속기사 지원이 없어 중요한 취업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학습 = 지원의 부재로 인해 취업 준비에 장벽을 느꼈고, 비장애인들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 (3) 사회적 장벽의 불리함

첫째, 물리적 접근성의 확보 어려움이다. 물리적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일부 참여자들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일부 취업자 참여자들은 접근성의 확보가 어려워 면접이나 서류전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유하였다. 예를 들어, 여전히 많은 기관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건물에 위치하였거나 건물 내부에서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좁은 공간이 배치되어있는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이나 이동 시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뿐 아니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참여자들 모두가 자택에서 직장까지의 거리와 대중교통의 접근성, 직장 내부에서의 물리적 장벽이 완화된 환경이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려사항이 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아무리 좋은 직장이나 적성에 맞는 기관이라고 해도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취업 이후의 삶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이 취업 선택에서 고려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다. 대부분의 대학생 및 취업자 참여자들은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채용 진행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을 느꼈거나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 측에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사전에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지원받기까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겪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은 필기시험이나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이나 확대시험지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이용 장소를 대여할 수 있을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사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요청을 해야 했다. 특히 대부분 기관에서 장애인의 편의 제공에 대한 제도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제한적인 편의 제공을 하는 데 그쳐 참여자들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였다.

셋째, 장애로 인한 차별과 공정한 역량 평가 기회의 제한이다. 대부분의 취업자 참여자들은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로 인한 차별이나 거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면접 전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만연함을 느꼈고,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단기간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 기관이라면 취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은 삶의 질도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생 참여자들 또한 자신의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제약이 있는 업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장애로 인한 제약이 더욱 부각되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기회조차 제한되는 것이 두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취업을 결정할 때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상사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간으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원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역량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조직 내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취업이 단순히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조직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이외의 인간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뇌병변장애 및 청각장애와 같이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는 취업 이후 조직 내에서 비장애인 동료 및 상사들과 대면하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하였다. 또한 자신의 장애를 공개하는 대상의 범위나 정도, 장애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걱정하였다.

## 2 장애 대학생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 1)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 사업의 개념

#### (1) 추진 배경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원활한 사회 진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거점 대학을 선정·운영하여, 장애 대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취업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교육 복지 및 취업 기회 확대 추진하였다.

첫째, 장애 대학생 양적 증가에도 양질의 진로·취업 지원 부족한 상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진로·취업·창업 지원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여 사회 진출에 필수적인 취업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2021년 기준으로 대학교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하였더니 대학의 37.3%(324개교 중 121개교)에 장애 대학생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이 부재하며, 별도 지원을 제공하는 대학의 41.8%(203개교 중 85개교) 장애 대학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둘째, 장애 유형이 다양하여 대학별 사업 추진에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 상태다. 대부분 대학의 장애 대학생이 10명 이하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장애 대학생이 재학 중인 380개교 중 10명 이하 재학 중인 대학 179개교 정도 있다. 또한 장애 대학생 장애 영역이 다양하고 장애 정도가 상이하서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 (2) 주요 성과

첫째, 거점 대학 중심 진로·취업특강 및 상담프로그램, 취업캠프 운영 등을 통해 장애 유형별로 고려해서 맞춤형 지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취업캠프(모의 면접, 컨설팅 등), 1:1 멘토링, 온라인 특강, 취업설명회, 자격증반(MOS 등), 면접 교육 등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운영실적은 2021년 총 219개교, 1,904명 대상 프로그램 지원 및 장애인고용공단,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지속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 설계와 취업역량 강화 등 학생들의 진로·취업에 대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준비 단계]

교육부	거점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 기본 계획 수립</li> <li>· 세부 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추진 세부 계획 수립</li> <li>· 보조금 신청</li> </ul>



[ 사업 시행 단계 ]

[ 협조 ]

교육부	거점 대학	권역 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 대학별 추진현황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실시</li> <li>· 권역별 협의회 운영</li> <li>· 거점 대학 협의회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 램 참여</li> <li>· 협의회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특강 서비스</li> <li>· 장애 대학생 채용설명회</li> <li>· 취업 성공 패키지</li> <li>· 온라인 취업사이트</li> </ul>



[사업 평가 단계]

교육부	거점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 대학 사업 평가 및 정산 처리</li> <li>· 우수사례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정산</li> <li>· 거점 대학 우수사례 공유</li> </ul>

## 2) 장애 대학생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프로그램

<표 2> 거점 대학 운영 교육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1	장애 학생 기업 연수	기업 파견을 통한 행정 실무 습득,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를 경험하도록 하는 취업 전 교육
2	장애 학생 취업 역량개발 프로그램	장애 학생의 구직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교육 - 컴퓨터 활용 교육 - 영어 활용 교육 - 선배 특강 - 면접 준비 특강 - 리더십 특강 - 이미지 메이킹 특강 등
3	장애 학생 취업 실무 교육	행정실무,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 - 바리스타 자격 취득 과정 - 웹툰 작가 양성과정 - 사무보조원 양성과정 - 컴퓨터 자격 취득과정 등
4	장애 학생 취업캠프	장애 학생의 취업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취업 스킬 교육
5	장애 학생 3단계 경력개발 프로그램	장애 학생의 진로 설정, 취업역량 강화, 취업스킬 향상 취업특강
6	장애 학생 현장 훈련 프로그램	중증 장애 학생의 현장 직무 체험 교육
7	지역사회 연계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고 장애 학생들이 취업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 OO 그룹 채용설명회, 충남 청각장애인 채용 박람회 등
8	장애 학생 취업 및 심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취업컨설팅을 통한 장애 학생 맞춤형 취업 교육 -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 심리 멘토링 프로그램 등
9	장애 학생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중증 장애 학생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10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	중증 장애 학생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설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3)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선정된 대학들은 권역 내 대학의 장애 대학생을 위해 진로와 취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2년부터 3년간 교당 총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등으로 장애 대학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장애 대학생의 진로·취업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장애 대학생의 맞춤형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권역별로 선정된 거점 대학은 권역 내 소규모로 분포된 장애 대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권역 내 장애 대학생들에게 사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진로·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이후부터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안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거점 대학 운영 인건비는 30%~42% 정도이고, 교육프로그램 진행 운영비 55%~67%, 거점 대학 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3%)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도별로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어떤 대학교에 선정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표 3> 같다.

<표 3>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사업 권역별 거점 대학 6곳 선정

연도별	권역	학교명	주요 운영 프로그램
2022	인천·경기	강남대학교	- 장애 대학생 기업 연수 - 지역사회 연계 장애 대학생 채용 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충청·대전	나사렛대학교	- 취업 및 심리지원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장애 대학생 고용 연계망(네트워크) 운영
	부산·울산·경남	부산대학교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 탐방단 운영 - 장애인 현직자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 보잡(JOB)’ 운영
	대구·경북	대구대학교	- 진로 취업체계 구축(자기 탐색, 직업 탐색, 역량개발, 취업 지원까지 관리)
	호남	전북대학교	- 진로 취업 특강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 맞춤형 권역 대학 지원 운영(찾아가는 상담,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	제주대학교	- 장애 대학생 상담 프로그램(‘숲 속 런치’) 운영 - 제주 공공기관 직무체험 교육 제공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서론을 포함하여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및 취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 기사이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장애 대학생의 취업 어려움 등등을 제시하는데 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의가 있다. 이 3장에서는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내용, 측정 도구, 분석 결과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2. 조사대상 및 방법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의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협조하였다.

둘째, 조사 기간은 연구생들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0일간 설문에 응한 장애 대학생들에게 총 200부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설문양식을 적성 후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171명의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표집 방법은 임의 표집으로 하였다

셋째,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1: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문헌 및 기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으며,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로 스트레스 척도, 그 외 취업 준비 과정에 관한 것을 핵심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3. 조사내용 및 측정 도구

현재 장애 대학생은 취업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취업 준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항목 중 진로 스트레스, 취업 준비 과정,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을 질문하였다.

<표 4> 조사내용 요약

영역		문항
일반 현황	인구사회적 특성	지역별, 성별,
	장애 특성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대학 및 전공 특성	학년별, 대학교별, 전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도 장애인 편의 지원 여부의 만족도
진로 및 취업 특성		진로 결정 상태, 취업 계획, 취업 과정, 진로 스트레스

## 1)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첫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관한 참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참여 경로, 취업 준비 과정 등등을 알아보았다. 반면에 비참여자도 취업 준비 과정 및 왜 이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둘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지금까지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1. 장애 학생 기업 연수 2. 자격증 취득 3.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4. 취업특강 5.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6.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역량 강화, 진로 설정) 7. 진로 · 취업 관련된 상담 8. 멘토링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에 대한 만족도이다.

문항은 총 9문항이다. 각 문항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가장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Cronbach's  $\alpha = .891$ 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지금까지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1. 취업 캠프 2. 취업 성공 패키지 3.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4. 취업특강 5.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7. 장애 학생 기업 연수 8. 대인관계 기술 9.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필요도이다.

문항은 총 9문항이다. 각 문항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가장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도는 Cronbach's  $\alpha = .900$ 로 나타났다.

## 2) 진로 스트레스

첫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는 이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취업 준비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반면에 비참여자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취업 준비할 때 얼마나 진로 스트레스를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 참여자는 취업 준비하면서 얼마나 진로 스트레스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희락(2009)에 의해 개발된 진로 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CSI)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5문항이며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개 하위척도는 진로 모호성, 취업압력, 정보 부족, 외부갈등, 내부갈등으로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진로 스트레스는 Cronbach's  $\alpha = .951$ 로 나타났다.

####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별 빈도수 및 비율을 가지고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다.

둘째, 장애 대학생의 진로 결정 상태,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 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필요도, 진로 스트레스의 평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통해 알아보았다.

넷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 내 취업 지원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통해 알아보았다.

## IV. 분석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총 171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본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107명(62.6%), 여자가 64명(37.4%)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 86명(50.3%), 서울특별시 22명(12.9%), 충청남도 10명(5.8%), 광주광역시 10명(5.8%), 충청북도 8명(4.7%), 경상남도 7명(4.1%), 강원도 7명(4.1%), 경상북도 4명(2.3%), 전라남도 3명(1.8%), 대전광역시 3명(1.8%), 인천광역시 3명(1.8%), 제주특별자치도 2명(1.2%), 대구광역시 2명(1.2%), 울산광역시 1명(0.6%), 부산광역시 1명(0.6%), 세종특별자치시도 1명(0.6%), 전라북도 1명(0.6%)이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지역	경기도	86	50.3%
	서울특별시	22	12.9%
	강원도	7	4.1%
	충청남도	10	5.8%
	충청북도	8	4.7%
	경상남도	7	4.1%
	전라남도	3	1.8%
	광주광역시	10	5.8%
	경상북도	4	2.3%
	제주특별자치도	2	1.2%
	대구광역시	2	1.2%
	울산광역시	1	0.6%
	부산광역시	1	0.6%
	세종특별자치시	1	0.6%
	대전광역시	3	1.8%
	인천광역시	3	1.8%
	전라북도	1	0.6%
전체	171	100%	

성별	남자	107	62.6%
	여자	64	37.4%
	전체	171	100%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 명 정도 대학교에 재학 중인지 알아보기 위해 총 171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다음과 같다. 장애 유형별로 분류하면 청각장애 85명 (49.7%), 뇌병변 장애 33명 (19.3%), 지적장애 20명 (11.7%), 지체 장애 16명 (9.4명), 시각장애 11명 (6.4%), 언어장애 4명 (2.3%), 자폐성 장애 2명 (1.2%)이다.

또한 장애 정도는 분류하자면, 중증은 135명 (78.9%)이고, 경증은 36명 (21.1%)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장애 유형별	시각장애	11	6.4%
	지체장애	16	9.4%
	청각장애	85	49.7%
	뇌병변장애	33	19.3%
	언어장애	4	2.3%
	지적장애	20	11.7%
	자폐성장애	2	1.2%
	전체	171	100%
장애 정도	중증	135	78.9%
	경증	36	21.1%
	전체	171	100%

첫째, 대학교별로 분류하자면 장애 대학생은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98명 (57.3%)이고,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은 73명 (42.7%) 정도 참여하였다.

둘째, 학년별은 1학년 41명 (24.0%), 2학년 73명 (42.7%), 3학년 50명 (29.2%), 4학년 7명 (24.3%)이다.

셋째, 전공별로 분류하면 인문 사회계열 100명 (58.8%), 예체능 계열 44명 (25.7%), 공학계열 15명 (8.8%), 자연과학 계열 8명 (4.7%), 교육계열 3명 (1.8%), 농수산학계열 1명 (0.6%)으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빈도(명)	퍼센트(%)
대학교	전문대학교	98	57.3%
	4년제 대학교	73	42.7%
	전체	171	100%
학년별	1학년	41	24.0%
	2학년	73	42.7%
	3학년	50	29.2%
	4학년	7	24.3%
	전체	171	100%
전공별	인문 사회계열	100	58.5%
	공학계열	15	8.8%
	예체능 계열	44	25.7%
	자연과학 계열	8	4.7%
	농수산학계열	1	0.6%
	교육계열	3	1.8%
	전체	171	100%

## 2. 장애 대학생의 진로 결정 상태

장애 대학생들은 현재 진로 결정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아직 모르겠음’ 26명 (15.2%) ‘진로를 결정 못 했지만, 걱정이 되지 않음’ 26명 (15.2%), ‘진로를 결정했지만, 불안이 많음’ 79명 (46.2%), ‘진로를 결정했지만, 많은 정보가 필요함’ 40명 (23.4%)으로 나타났다.

<표 6> 장애 대학생의 진로 결정 상태

구분	빈도(명)	퍼센트(%)
아직 모르겠음	26	15.2%
진로를 결정 못 했지만, 걱정이 되지 않음	26	15.2%
진로를 결정했지만, 불안이 많음	79	46.2%
진로를 결정했지만, 많은 정보가 필요함	40	23.4%
전체	171	100%

그중에서 ‘진로를 결정했지만, 불안이 많음’ 79명 (46.2%) 가장 높게 나왔고, 반면에 ‘아직 모르겠음’ 26명 (15.2%)이고, ‘진로를 결정 못 했지만, 걱정이 되지 않음’ 26명 (15.2%)이 가장 똑같이 낮게 나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 3.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분석 해 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알고 있었다’ 86명 (50.3%)이고, ‘전혀 몰랐다’ 85명 (49.7%)으로 나타났다

<표 7>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 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	86	50.3%
아니요	85	49.7%
전체	171	100%

그렇다면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어떻게 정보 수집했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 분석 결과는 ‘인터넷(블로그, 뉴스)’ 26명 (18.6%), ‘학교 게시판 홍보’ 63명 (73.3%), ‘SNS(인스타, 페이스북)’ 7명 (8.1%)으로 알 수 있다.

<표 8> 진로 · 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파악

구분	빈도(명)	퍼센트(%)
인터넷(블로그, 뉴스)	26	18.6%
학교 게시판 홍보	63	73.3%
SNS(인스타, 페이스북)	7	8.1%
전체	86	100%

그중에서 제일 많이 정보 수집한 ‘학교 게시판 홍보’ 63명 (73.3%),이고, 반면에 가장 낮게 나온 ‘SNS(인스타, 페이스북)’ 7명 (8.1%)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어떤 정보가 부족한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무관심’ 64명 (75.3%), ‘학교 게시판 홍보 부족’ 18명 (21.2%),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없음’, 3명 (3.5%)으로 알 수 있다

<표 9>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구분	빈도(명)	퍼센트(%)
무관심	64	75.3%
학교 게시판 홍보 부족	18	21.2%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없음	3	3.5%
전체	85	100%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무관심 64명 (75.3%),이고, 반면에 가장 낮게 나온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없음, 3명 (3.5%)이 나타났다.

#### 4. 장애 대학생의 취업 계획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계획이 있는지를 분석 해 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예’ 136명 (79.5%), ‘아니요’ 35명 (20.5%)으로 나타났다.

<표 10> 취업할 계획의 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	136	79.5%
아니요	35	20.5%
전체	171	100%

취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직종에서 근무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보호작업장 7명 (5.1%), 경영 관리직 7명 (5.1%), 사회복지직 43명 (31.6%), 전문직 16명 (11.8%), 사무직 14명 (10.3%), 서비스직 3명 (2.2%), 공무원 42명 (30.9%), 창업 4명 (2.9%)으로 나타났다.

<표 11> 전공 무관한 직무

구분	빈도(명)	퍼센트(%)
보호작업장	7	5.1%
경영 관리직	7	5.1%
사회복지직	43	31.6%
전문직	16	11.8%
사무직	14	10.3%
서비스직	3	2.2%
공무원	42	30.9%
창업	4	2.9%
전체	136	100%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직종에서 근무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사회복지직 43명 (31.6%)이고, 반면에 가장 낮게 나온 서비스직 3명 (2.2%)으로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취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낯선 환경 두려움 5명 (14.3%), 비장애인과 차별 7명 (20.0%), 업무처리 부담감 9명 (25.7%), 대인관계 어려움 12명 (34.3%), 직장 필요 없음, 2명 (5.7%)으로 알 수 있다.

<표 12> 바로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낯선 환경 두려움	5	14.3%
비장애인과 차별	7	20.0%
업무처리 부담감	9	25.7%
대인관계 어려움	12	34.3%
직장 필요 없음	2	5.7%
전체	35	100%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계획인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예’ 115명 (67.3%)이고, ‘아니요’ 56명 (32.7%)으로 나타났다.

<표 13>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계획의 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	115	67.3%
아니요	56	32.7%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 전공 공무원 46명 (40.0%), 전공 현장직 42명 (36.5%), 전공 사무직 17명 (14.8%), 전공 서비스직 10명 (8.7%)으로 알 수 있다.

<표 14> 전공을 살린 취업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공 공무원	46	40.0%
전공 현장직	42	36.5%
전공 사무직	17	14.8%
전공 서비스직	10	8.7%
전체	115	100%

반면에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할 계획이라고 생각한 응답한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을 살리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내 적성과 맞지 않음’, 11명 (19.6%), ‘전공 분야의 미래, 비전이 밝지 않음’ 5명 (8.9%) ‘전공 지식을 충분히 쌓지 못함’ 28명 (50.0%) ‘취업을 빨리해야 함’ 12명 (21.4%)으로 나타났다.

<표 15> 전공을 살리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내 적성과 맞지 않음	11	19.6%
전공 분야의 미래, 비전이 밝지 않음	5	8.9%
전공 지식을 충분히 쌓지 못함	28	50.0
취업을 빨리해야 함	12	21.4%
전체	56	100%

## 5. 장애 대학생의 취업 과정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하면서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지인 소개 35명 (2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명 (32.2%), 장애 학생 지원센터 취업 정보 48명 (28.1%), 기타는 교수님 상담 20명 (11.7%)으로 나타났다.

<표 16> 장애 대학생의 취업 정보 수집

구분	빈도(명)	퍼센트(%)
지인 소개	35	2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	32.2%
장애 학생 지원센터 취업 정보	48	28.1%
취업 관련된 유튜브	13	7.6%
기타	20	11.7%
전체	171	100%

장애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자격증 취득 어려움’ 56명 (32.7%), ‘이력서 작성 어려움’ 61명 (35.7%), 취업 정보 부족 40명 (23.4%), 적성 찾기 어려움 14명 (8.2%)으로 나타났다.

<표 17>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자격증 취득 어려움	56	32.7%
이력서 작성 어려움	61	35.7%
취업 정보 부족	40	23.4%
적성 찾기 어려움	14	8.2%
전체	171	100%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할 때 어떤 점에서 제일 걱정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 분석 결과는 낮은 임금 28명 (16.4%), 직장 상사 및 동료 간 관계의 어려움 69명 (40.4%), 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 59명 (34.5%), 근무 환경 15명 (8.8%)으로 나타났다.

<표 18>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제일 걱정되었던 점

구분	빈도(명)	퍼센트(%)
낮은 임금	28	16.4%
직장 상사 및 동료 간 관계의 어려움	69	40.4%
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	59	34.5%
근무 환경	15	8.8%
전체	171	100%

## 6.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도

지금까지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예’ 89명 (52.0%)이고, ‘아니요’ 82명 (48.0%)으로 나타났다.

<표 19>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	89	52.0%
아니요	82	48.0%
전체	171	100%

그렇다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응답한 사람들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호기심 44명 (25.7%), 주변인의 추천 20명 (11.7%), 취업처 연결 2명 (1.2%), 다양한 취업 정보 활용 23명 (13.5%)으로 나타났다.

<표 20>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경로

구분	빈도(명)	퍼센트(%)
호기심	44	25.7%
주변인의 추천	20	11.7%
취업처 연결	2	1.2%
다양한 취업 정보 활용	23	13.5%
전체	89	100%

반면에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한 사람들은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점에 미흡한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예산 부족’ 8명 (9.8%), ‘전문 인력 부족 (장애 대학생 지원)’ 7명(8.5%), ‘장애 대학생 취업 지원센터 담당자 부재’ 10명 (12.2%),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부재 57명 (69.5%)으로 나타났다.

<표 21>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산 부족	8	9.8%
전문 인력 부족 (장애 대학생 지원)	7	8.5%
장애 대학생 취업 지원센터 담당자 부재	10	12.2%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부재	57	69.5%
전체	82	48.0%

장애 대학생들은 왜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았다. 빈도 분석 결과는 ‘무관심’ 47명 (57.3%), ‘시간 낭비’ 9명(11.0%), ‘효과성 부재’ 23명 (28.0%), ‘대학원 진학’ 3명 (3.7%)으로 나타났다.

<표 22>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무관심	47	57.3%
시간 낭비	9	11.0%
대학원 진학	3	3.7%
효과성 부재	23	28.0%
전체	82	100%

마지막으로는 장애 대학생들은 지금 아니더라도 추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참여를 원한다’ 36명 (43.9%),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46명(56.1%)으로 나타났다.

<표 23> 추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참여를 원한다.	36	43.9%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46	56.1%
전체	82	100%

## 7.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장애 학생 기업 연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명 (10.1%), ‘도움이 되지 않았다’ 2명 (2.2%), ‘보통이다’ 12명 (13.5%), ‘도움이 되었다’ 7명 (7.9%) ‘매우 도움이 되었다’ 59명 (66.3%)으로 알 수 있다.

<표 24> 장애 학생 기업 연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	10.1%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2.2%
보통이다	12	13.5%
도움이 되었다	7	7.9%
매우 도움이 되었다	59	66.3%
전체	89	100%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명 (2.2%), ‘도움이 되지 않았다’ 1명 (1.1%), ‘보통이다’ 10명 (11.2%), ‘도움이 되었다’ 19명 (21.3%) ‘매우 도움이 되었다’ 57명 (64.0%)으로 알 수 있다.

<표 25> 자격증 취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2.2%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1.1%
보통이다	10	11.2%
도움이 되었다	19	21.3%
매우 도움이 되었다	57	64.0%
전체	89	100%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 박람회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4명 (15.7%), ‘도움이 되지 않았다’ 3명 (3.4%), ‘보통이다’ 13명 (14.6%), ‘도움이 되었다’ 12명 (13.5%) ‘매우 도움이 되었다’ 47명 (52.8%)으로 알 수 있다.

<표 26>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4	15.7%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3.4%
보통이다	13	14.6%
도움이 되었다	12	13.5%
매우 도움이 되었다	47	52.8%
전체	89	100%

취업특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명 (10.1%),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명 (4.5%), ‘보통이다’ 13명 (14.6%), ‘도움이 되었다’ 13명 (14.6%) ‘매우 도움이 되었다’ 50명 (56.2%)으로 알 수 있다.

<표 27> 취업특강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9	10.1%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4.5%
보통이다	13	14.6%
도움이 되었다	13	14.6%
매우 도움이 되었다	50	56.2%
전체	89	100%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명 (9.0%),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명 (4.5%), ‘보통이다’ 14명 (15.7%), ‘도움이 되었다’ 10명 (11.2%) ‘매우 도움이 되었다’ 53명 (59.6%)으로 알 수 있다.

<표 28>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	9.0%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4.5%
보통이다	14	15.7%
도움이 되었다	10	11.2%
매우 도움이 되었다	53	59.6%
전체	89	100%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역량 강화, 진로 설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명 (4.5%), ‘도움이 되지 않았다’ 5명 (5.6%), ‘보통이다’ 12명 (13.5%), ‘도움이 되었다’ 16명 (18.0%) ‘매우 도움이 되었다’ 52명 (58.4%)으로 알 수 있다.

<표 29>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역량 강화, 진로 설정)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4.5%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5.6%
보통이다	12	13.5%
도움이 되었다	16	18.0%
매우 도움이 되었다	52	58.4%
전체	89	100%

진로 · 취업 관련된 상담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명 (5.6%), ‘도움이 되지 않았다’ 0명 (0.0%), ‘보통이다’ 9명 (10.1%), ‘도움이 되었다’ 19명 (21.3%) ‘매우 도움이 되었다’ 56명 (62.9%)으로 알 수 있다.

<표 30> 진로 · 취업 관련된 상담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5.6%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보통이다	9	10.1%
도움이 되었다	19	21.3%
매우 도움이 되었다	56	62.9%
전체	89	100%

멘토링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명 (5.6%), ‘도움이 되지 않았다’ 0명 (0.0%), ‘보통이다’ 14명 (15.7%), ‘도움이 되었다’ 10명 (11.2%) ‘매우 도움이 되었다’ 60명 (67.4%)으로 알 수 있다.

<표 31> 멘토링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5.6%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0%
보통이다	14	15.7%
도움이 되었다	10	11.2%
매우 도움이 되었다	60	67.4%
전체	89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명 (9.0%), ‘도움이 되지 않았다’ 1명 (1.1%), ‘보통이다’ 16명 (18.0%), ‘도움이 되었다’ 7명 (7.9%) ‘매우 도움이 되었다’ 57명 (64.0%)으로 알 수 있다.

<표 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8	9.0%
도움이 되지 않았다	1	1.1%
보통이다	16	18.0%
도움이 되었다	7	7.9%
매우 도움이 되었다	57	64.0%
전체	89	100%

<표 33>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별 평균 도움 정도 요약

문항	평균	표준편차
장애 학생 기업 연수	4.18	1.33
자격증 취득	4.44	.90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3.84	1.49
취업특강	4.02	1.34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4.08	1.32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역량 강화, 진로 설정)	4.20	1.15
진로 · 취업 관련된 상담	4.36	1.05
멘토링	4.35	1.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4.17	1.29
전체	37.64	10.97
	점수 구간 (5~45점)	

그렇다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별에 대한 평균의 도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점 중에 총 평균 37.64점(표준편차=10.97)이 나왔으므로 현재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장애 학생 기업 연수’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18점(표준편차 = 1.33)이었고, ‘자격증 취득’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44점(표준편차 = .90)이었다.

**둘째**,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3.84점(표준편차 = 1.49)이었고, ‘취업특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02점(표준편차 = 1.34)이었다.

**셋째**,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08점(표준편차 = 1.32)이었고,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역량 강화, 진로 설정)’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20점(표준편차 = 1.15)이었다.

**넷째**, ‘진로 · 취업 관련된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36점(표준편차 = 1.05)이었고, ‘멘토링’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35점(표준편차 = 1.10)이었다.

**다섯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17점(표준편차 = 1.05)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평균 37.64점(표준편차 = 10.9)이었고,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 취득**’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일 높게 나왔지만, 앞으로 취업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

다.

반면에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일 낮게 나왔지만, 참여했을 때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

## 8.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도

반면에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취업캠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11명 (6.4%), ‘거의 필요 없다’ 5명 (2.9%), ‘보통이다’ 32명 (18.7%), ‘약간 필요하다’ 27명 (15.8%) ‘필요하다’ 96명 (56.1%)으로 알 수 있다.

<표 34> 취업캠프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11	6.4%
거의 필요없다	5	2.9%
보통이다	32	18.7%
약간 필요하다	27	15.8%
필요하다	96	56.1%
전체	171	100%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13명 (7.6%), ‘거의 필요 없다’ 3명 (1.8%), ‘보통이다’ 32명 (18.7%), ‘약간 필요하다’ 34명 (19.9%) ‘필요하다’ 89명 (52.0%)으로 알 수 있다.

<표 35> 취업 성공 패키지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13	7.6%
거의 필요없다	3	1.8%
보통이다	32	18.7%
약간 필요하다	34	19.9%
필요하다	89	52.0%
전체	171	100%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30명 (17.5%), ‘거의 필요 없다’ 5명 (2.9%), ‘보통이다’ 33명 (19.3%), ‘약간 필요하다’ 23명 (13.5%) ‘필요하다’ 80명 (46.8%)으로 알 수 있다.

<표 36>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30	17.5%
거의 필요없다	5	2.9%
보통이다	33	19.3%
약간 필요하다	23	13.5%
필요하다	80	46.8%
전체	171	100%

취업특강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15명 (8.8%), ‘거의 필요 없다’ 2명 (1.2%), ‘보통이다’ 28명 (16.4%), ‘약간 필요하다’ 34명 (19.9%) ‘필요하다’ 92명 (53.8%)으로 알 수 있다.

<표 37> 취업특강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15	8.8%
거의 필요없다	2	1.2%
보통이다	28	16.4%
약간 필요하다	34	19.9%
필요하다	92	53.8%
전체	171	100%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12명 (7.0%), ‘거의 필요 없다’ 4명 (2.3%), ‘보통이다’ 30명 (17.5%), ‘약간 필요하다’ 31명 (18.1%) ‘필요하다’ 94명 (55.0%)으로 알 수 있다.

<표 38>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12	7.0%
거의 필요없다	4	2.3%
보통이다	30	17.5%
약간 필요하다	31	18.1%
필요하다	94	55.0%
전체	171	1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12명 (7.0%), ‘거의 필요 없다’ 3명 (1.8%), ‘보통이다’ 33명 (19.3%), ‘약간 필요하다’ 27명 (15.8%) ‘필요하다’ 96명 (56.1%)으로 알 수 있다.

<표 3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12	7.0%
거의 필요없다	3	1.8%
보통이다	33	19.3%
약간 필요하다	27	15.8%
필요하다	96	56.1%
전체	171	100%

장애 학생 기업 연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11명 (6.4%), ‘거의 필요 없다’ 3명 (1.8%), ‘보통이다’ 32명 (18.7%), ‘약간 필요하다’ 26명 (15.2%) ‘필요하다’ 99명 (57.9%)으로 알 수 있다.

<표 40> 장애 학생 기업 연수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11	6.4%
거의 필요없다	3	1.8%
보통이다	32	18.7%
약간 필요하다	26	15.2%
필요하다	99	57.9%
전체	171	100%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7명 (4.1%), ‘거의 필요 없다’ 2명 (1.2%), ‘보통이다’ 30명 (17.5%), ‘약간 필요하다’ 26명 (15.2%) ‘필요하다’ 106명 (62.0%)으로 알 수 있다.

<표 41> 대인관계 기술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7	4.1%
거의 필요없다	2	1.2%
보통이다	30	17.5%
약간 필요하다	26	15.2%
필요하다	106	62.0%
전체	171	100%

자격증 취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전혀 필요 없다’ 7명 (4.1%), ‘거의 필요 없다’ 1명 (0.6%), ‘보통이다’ 21명 (12.3%), ‘약간 필요하다’ 19명 (11.1%) ‘필요하다’ 123명 (71.9%)으로 알 수 있다.

<표 42> 자격증 취득

구분	빈도(명)	퍼센트(%)
전혀 필요없다	7	4.1%
거의 필요없다	1	0.6%
보통이다	21	12.3%
약간 필요하다	19	11.1%
필요하다	123	71.9%
전체	171	100%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지금까지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얻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불만족했다’ 5명 (5.6%), ‘불만족했다’ 7명 (7.9%), ‘보통이다’ 19명 (21.3%), ‘만족했다’ 7명 (4.1%) ‘매우 만족했다’ 51명 (57.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5점 중에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만족도의 평균 4.01점(표준편차 = 1.23)이 나왔으므로 현재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43>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불만족했다	5	5.6%
불만족했다	7	7.9%
보통이다	19	21.3%
만족했다	7	7.9%
매우 만족했다	51	57.3%
전체	89	100%
	평균(4.01), 표준편차(1.23)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지금까지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뭘지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없음’ 64명 (38.6%), ‘지원 미흡’ 16명 (9.4%) ‘이해가 어려움을 느낌’ 7명 (4.1%)으로 나타났다

<표 44>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가장 어려웠던 점

구분	빈도(명)	퍼센트(%)
없음	64	38.6%
지원 미흡	16	9.4%
이해가 어려움을 느낌	7	4.1%
전체	89	100%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 편의 지원 만족도가 어땠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불만족했다’ 8명 (9.0%), ‘불만족했다’ 5명 (5.6%), ‘보통이다’ 21명 (23.6%), ‘만족했다’ 10명 (11.2%), ‘매우 만족했다’ 45명 (50.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5점 중에 평균 3.88 점(표준편차 = 1.33)으로 나왔으므로 현재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장애인 편의 지원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장애인 편의 지원 만족도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불만족했다	8	9.0%
불만족했다	5	5.6%
보통이다	21	23.6%
만족했다	10	11.2%
매우 만족했다	45	50.6%
전체	89	100%
		평균(3.88), 표준편차(1.33)

장애 대학생들은 현재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추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예’ 64명 (71.9%), ‘아니요’ 25명 (28.1%)으로 나타났다.

<표 46> 추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할 의향

구분	빈도(명)	퍼센트(%)
예	64	71.9%
아니요	25	28.1%
전체	89	100%

장애 대학생들은 현재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향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어떤 주제로 참여하고 싶은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19명 (21.3%), ‘자기 이해(가치관, 강점 탐색)’ 34명 38.2%, ‘적성 탐색을 위한 심리 검사’ 29명 (32.6%), ‘자기 표현력 향상’ 7명 (7.9%)으로 나타났다.

<표 47> 추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어떤 주제로 참여하고 싶은 이유

구분	빈도(명)	퍼센트(%)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19	21.3%
자기 이해(가치관, 강점 탐색)	34	38.2%
적성 탐색을 위한 심리 검사	29	32.6%
자기 표현력 향상	7	7.9%
전체	89	100%

<표 48>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별에 대한 평균의 필요성 정도 요약

구분	평균	표준편차
취업캠프	4.12	1.19
취업 성공 패키지	4.07	1.21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3.69	1.50
취업특강	4.09	1.24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4.12	1.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4.12	1.20
장애 학생 기업 연수	4.16	1.18
대인관계 기술	4.30	1.06
자격증 취득	4.48	1.02
전체	37.15	10.8
	점수 구간 (5~45점)	

그렇다면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별에 대한 평균의 필요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점 중에 평균 37.15점(표준편차=10.8)이 나왔으므로 현재 장애 대학생들은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꼭 필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경험을 삼아서 취업 준비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취업캠프’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12점(표준편차 = 1.19)이었고, ‘취업 성공 패키지’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07점(표준편차 = 1.21)이었다.

**둘째**,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3.69점(표준편차 = 1.50)이었고, ‘취업특강’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09점(표준편차 = 1.24)이었다.

**셋째**,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12점(표준편차 = 1.20)이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12점(표준편차 = 1.20)이었다.

**넷째**, ‘장애 학생 기업 연수’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16점(표준편차 = 1.18)이었고, ‘대인관계 기술’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30점(표준편차 = 1.06)이었다.

**다섯째**, ‘자격증 취득’에 관한 프로그램은 평균 4.48점(표준편차 = 1.02)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평균 37.15점(표준편차 = 10.8)이었고,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 취득’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일 높게 나왔지만, 역시나 앞으로 취업 준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가 있다. 반면에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에 관한 프로그램이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애 대학생과 졸업 예정자(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2학년)인 장애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배포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더 나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장애 대학생과 장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는 생각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깊게 고민을 해보야 할 존재인 것 같다.

## 9.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74명 (43.3%), ‘그렇지 않다’ 11명 (6.4%), ‘보통이다’ 16명 (9.4%), ‘그렇다’ 28명 (16.4%), ‘매우 그렇다’ 42명 (24.6%)으로 나타났다.

<표 49>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74	43.3%
그렇지 않다	11	6.4%
보통이다	16	9.4%
그렇다	28	16.4%
매우 그렇다	42	24.6%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25명 (14.6%), ‘그렇지 않다’ 8명 (4.7%), ‘보통이다’ 24명 (14.0%), ‘그렇다’ 22명 (12.9%), ‘매우 그렇다’ 92명 (53.8%)으로 나타났다.

<표 50>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25	14.6%
그렇지 않다	8	4.7%
보통이다	24	14.0%
그렇다	22	12.9%
매우 그렇다	92	53.8%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9명 (28.7%), ‘그렇지 않다’ 10명 (5.8%), ‘보통이다’ 31명 (18.1%), ‘그렇다’ 29명 (17.0%), ‘매우 그렇다’ 52명 (30.4%)으로 나타났다.

<표 51>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서 고민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9	28.7%
그렇지 않다	10	5.8%
보통이다	31	18.1%
그렇다	29	17.0%
매우 그렇다	52	30.4%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8명 (28.1%), ‘그렇지 않다’ 14명 (8.2%), ‘보통이다’ 26명 (15.2%), ‘그렇다’ 27명 (15.8%), ‘매우 그렇다’ 56명 (32.7%)으로 나타났다.

<표 52> 내 적성에 맞는 진로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8	28.1%
그렇지 않다	14	8.2%
보통이다	26	15.2%
그렇다	27	15.8%
매우 그렇다	56	32.7%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4명 (25.7%), ‘그렇지 않다’ 12명 (7.0%), ‘보통이다’ 22명 (12.9%), ‘그렇다’ 26명 (15.2%), ‘매우 그렇다’ 67명 (39.2%)으로 나타났다.

<표 53> 취업 준비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4	25.7%
그렇지 않다	12	7.0%
보통이다	22	12.9%
그렇다	26	15.2%
매우 그렇다	67	39.2%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71명 (41.5%), ‘그렇지 않다’ 16명 (9.4%), ‘보통이다’ 28명 (16.4%), ‘그렇다’ 18명 (10.5%), ‘매우 그렇다’ 38명 (22.2%)으로 나타났다.

<표 54> 내 의지와는 반대로 부모님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는 것이 불만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71	41.5%
그렇지 않다	16	9.4%
보통이다	28	16.4%
그렇다	18	10.5%
매우 그렇다	38	22.2%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9명 (28.7%), ‘그렇지 않다’ 11명 (6.4%), ‘보통이다’ 32명 (18.7%), ‘그렇다’ 36명 (21.1%), ‘매우 그렇다’ 43명 (25.1%)으로 나타났다.

<표 55> 현재 계획 중인 진로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 힘들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9	28.7%
그렇지 않다	11	6.4%
보통이다	32	18.7%
그렇다	36	21.1%
매우 그렇다	43	25.1%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4명 (25.7%), ‘그렇지 않다’ 8명 (4.7%), ‘보통이다’ 31명 (18.1%), ‘그렇다’ 31명 (18.1%), ‘매우 그렇다’ 53명 (31.0%)으로 나타났다.

<표 56> 학교 생활과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4	25.7%
그렇지 않다	8	4.7%
보통이다	31	18.1%
그렇다	35	20.5%
매우 그렇다	53	31.0%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58명 (33.9%), ‘그렇지 않다’ 15명 (8.8%), ‘보통이다’ 28명 (16.4%), ‘그렇다’ 27명 (15.8%), ‘매우 그렇다’ 43명 (25.1%)으로 나타났다.

<표 57> 원하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58	33.9%
그렇지 않다	15	8.8%
보통이다	28	16.4%
그렇다	27	15.8%
매우 그렇다	43	25.1%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54명 (31.6%), ‘그렇지 않다’ 16명 (9.4%), ‘보통이다’ 28명 (16.4%), ‘그렇다’ 25명 (14.6%), ‘매우 그렇다’ 48명 (28.1%)으로 나타났다.

<표 58>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54	31.6%
그렇지 않다	16	9.4%
보통이다	28	16.4%
그렇다	25	14.6%
매우 그렇다	48	28.1%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4명 (25.7%), ‘그렇지 않다’ 2명 (1.2%), ‘보통이다’ 24명 (14.0%), ‘그렇다’ 42명 (24.6%), ‘매우 그렇다’ 59명 (34.5%)으로 나타났다.

<표 59>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4	25.7%
그렇지 않다	2	1.2%
보통이다	24	14.0%
그렇다	42	24.6%
매우 그렇다	59	34.5%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51명 (29.8%), ‘그렇지 않다’ 14명 (8.2%), ‘보통이다’ 30명 (17.5%), ‘그렇다’ 23명 (13.5%), ‘매우 그렇다’ 53명 (31.0%)으로 나타났다.

<표 60>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51	29.8%
그렇지 않다	14	8.2%
보통이다	30	17.5%
그렇다	23	13.5%
매우 그렇다	53	31.0%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33명 (19.3%), ‘그렇지 않다’ 4명 (2.3%), ‘보통이다’ 27명 (15.8%), ‘그렇다’ 37명 (21.6%), ‘매우 그렇다’ 70명 (40.9%)으로 나타났다.

<표 61> 취업을 위한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33	19.3%
그렇지 않다	4	2.3%
보통이다	27	15.8%
그렇다	37	21.6%
매우 그렇다	70	40.9%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60명 (35.1%), ‘그렇지 않다’ 18명 (10.5%), ‘보통이다’ 32명 (18.7%), ‘그렇다’ 14명 (8.2%), ‘매우 그렇다’ 47명 (27.5%)으로 나타났다.

<표 62>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60	35.1%
그렇지 않다	18	10.5%
보통이다	32	18.7%
그렇다	14	8.2%
매우 그렇다	47	27.5%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58명 (33.9%), ‘그렇지 않다’ 21명 (12.3%), ‘보통이다’ 33명 (19.3%), ‘그렇다’ 16명 (9.4%), ‘매우 그렇다’ 43명 (25.1%)으로 나타났다.

<표 63> 내가 계획하는 진로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민이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58	33.9%
그렇지 않다	21	12.3%
보통이다	33	19.3%
그렇다	16	9.4%
매우 그렇다	43	25.1%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5명 (26.3%), ‘그렇지 않다’ 14명 (8.2%), ‘보통이다’ 31명 (18.1%), ‘그렇다’ 35명 (20.5%), ‘매우 그렇다’ 46명 (26.9%)으로 나타났다.

<표 64> 진로 준비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는지에 잘 몰라서 답답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5	26.3%
그렇지 않다	14	8.2%
보통이다	31	18.1%
그렇다	35	20.5%
매우 그렇다	46	26.9%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39명 (22.8%), ‘그렇지 않다’ 11명 (6.4%), ‘보통이다’ 30명 (17.5%), ‘그렇다’ 35명 (20.5%), ‘매우 그렇다’ 56명 (32.7%)으로 나타났다.

<표 65>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막막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39	22.8%
그렇지 않다	11	6.4%
보통이다	30	17.5%
그렇다	35	20.5%
매우 그렇다	56	32.7%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9명 (28.7%), ‘그렇지 않다’ 15명 (8.8%), ‘보통이다’ 29명 (17.0%), ‘그렇다’ 26명 (15.2%), ‘매우 그렇다’ 52명 (30.4%)으로 나타났다.

<표 66> 진로에 대비하여 어떤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4	25.7%
그렇지 않다	4	2.3%
보통이다	35	20.5%
그렇다	35	20.5%
매우 그렇다	53	31.0%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9명 (28.7%), ‘그렇지 않다’ 15명 (8.8%), ‘보통이다’ 29명 (17.0%), ‘그렇다’ 26명 (15.2%), ‘매우 그렇다’ 52명 (30.4%)으로 나타났다.

<표 67> 진로와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49	28.7%
그렇지 않다	15	8.8%
보통이다	29	17.0%
그렇다	26	15.2%
매우 그렇다	52	30.4%
전체	171	100%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그렇지 않다’ 49명 (28.7%), ‘그렇지 않다’ 15명 (8.8%), ‘보통이다’ 29명 (17.0%), ‘그렇다’ 26명 (15.2%), ‘매우 그렇다’ 52명 (30.4%)으로 나타났다.

<표 68>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구분	빈도(명)	퍼센트(%)
매우 그렇지 않다	56	32.7%
그렇지 않다	13	7.6%
보통이다	23	13.5%
그렇다	30	17.5%
매우 그렇다	49	28.7%
전체	171	100%

<표 69> 진로 스트레스 요약

문항	평균	표준편차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2.73	1.69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3.87	1.47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만, 주위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서 고민이다	3.15	1.60
내 적성에 맞는 진로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다	3.17	1.63
취업 준비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3.35	1.64
내 의지와는 반대로 부모님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시는 것이 불만이다	2.63	1.62
현재 계획 중인 진로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 힘들다	3.08	1.56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3.26	1.57
원하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다	2.89	1.61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2.98	1.62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3.41	1.58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	3.08	1.63
취업을 위한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3.63	1.50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2.82	1.63
내가 계획하는 진로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민이다	2.80	1.59
진로 준비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는지에 잘 몰라서 답답하다	3.13	1.55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막막하다	3.34	1.54
진로에 대비하여 어떤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3.29	1.55
진로와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다	3.10	1.61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3.02	1.65
전체	62.73	31.84

그렇다면 장애 대학생들은 진로 스트레스 평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점 중에 평균 62.73 점(표준편차 = 31.19)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할 때 진로 스트레스 수준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먼저 진로 스트레스 척도에 관한 20문항 중에 **가장 높게 나왔던 문항은**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라는 문항은 평균 3.87점 (표준편차 = 1.47)이었다.

**둘째**, ‘취업을 위한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는 문항은 평균 3.63점 (표준편차 = 1.50)이었다.

**셋째**,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문항은 평균 3.41점 (표준편차 = 1.58)이었다

**넷째**, ‘취업 준비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라는 문항은 평균 3.35

점 (표준편차 = 1.64)이었다.

**다섯째**, ‘취업 준비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라는 문항은 평균 3.35점 (표준편차 = 1.64)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할 때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진로 스트레스 척도에 관한 20문항 중에 가장 낮게 나왔던 문항은 순서대로 정리 하자면 아래와 다음과 같다.

**첫째**, ‘내 의지와는 반대로 부모님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시는 것이 불만이다’라는 문항은 평균 2.63점 (표준편차 = 1.62)이었다.

**둘째**,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라는 문항은 평균 2.73점 (표준편차=1.69)이었다.

**셋째**, ‘내가 계획하는 진로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민이다’라는 문항은 평균 2.80점 (표준편차 = 1.59)이었다.

**넷째**,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라는 문항은 평균 2.82점 (표준편차 = 1.63)이었다

**다섯째**, ‘원하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다’라는 문항은 평균 2.89점 (표준편차 = 1.61)이었다. 이에 따라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할 때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 10.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의 차이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진로 스트레스,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 비참여자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독립표본 T 검정 분석(Independent t-test)을 하였더니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프로그램을 참여 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혼자 취업 준비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참여자는 평균 30.89점(표준편차=18.30)이므로 비참여자보다 진로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반면에 비참여자는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혼자 취업 준비할 때 장애물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비참여자가 평균 90.17(표준편차 = 18.38)이므로 참여자보다 제일 진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0>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진로 스트레스의 차이

변수		N	M(S.D)	t
진로 스트레스 총합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89	30.89(18.30)	-21.109***
	비참여자	82	90.17(18.38)	

\*\*\*p<.001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30.89점(표준편차=18.30)이었고, 반면에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비참여자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90.17점(표준편차=18.38)점으로 비참여자에 진로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1.109, p=.000)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의 바탕(Independent t-test)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성별)과 진로 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1> 성별 진로 스트레스 차이

변수		N	M(S.D)	t
진로 스트레스 합계 전체	남자	107	61.39(23.32)	-.980
	여자	64	64.90(22.31)	

남성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1.39점(표준편차=23.32)이었고, 여성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4.90점(표준편차=22.31)으로 여성의 진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학년별)과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2> 학년별 진로 스트레스 차이

변수		N	M(S.D)	F
진로 스트레스 합계 전체	1학년	41	62.43(24.86)	.618
	2학년	73	64.83(22.23)	
	3학년	50	59.34(23.71)	
	4학년	7	66.14(10.76)	

1학년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2.43점(표준편차=24.86)이었고, 2학년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4.83(22.23)이었다. 또한 3학년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59.34점(표준편차=23.71)이었고, 4학년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6.14점(표준편차=10.76)으로 2학년의 진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장애유형별)과 진로 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3> 장애 유형별 진로 스트레스 차이

변수		N	M(S.D)	F
진로 스트레스 합계 전체	시각장애	11	72.45(20.54)	.746
	지체 · 뇌병변장애	49	61.06(24.52)	
	청각 · 언어장애	89	62.50(23.62)	
	지적 · 자폐성장애	22	62.31(17.11)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72.45점(표준편차=20.54)이었고, 지체 ·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1.06(24.52)이었다. 또한 청각 ·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2.50점(표준편차=23.62)이었고, 지적 ·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2.31점(표준편차=17.11)이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의 바탕(Independent t-test)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장애 정도)과 진로 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4> 장애 정도 진로 스트레스 차이

변수		N	M(S.D)	t
진로 스트레스 합계 전체	중증	135	63.42(22.32)	.740
	경증	36	60.00(25.30)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3.42점(표준편차=22.32)이었고, 경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평균 60.00(25.30)이었다.

그중에서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의 바탕(Independent t-test)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성별)과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5> 성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차이

변수		N	M(S.D)	t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남자	59	3.63(1.47)	1.024
	여자	30	3.27(1.61)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남성은 평균 3.63점(표준편차=1.47)이었고, 반면에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여성은 평균 3.27점(표준편차=1.61)점으로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남성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성별)과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6> 학년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만족도 차이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F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1학년	22	3.95	.335
	2학년	31	4.03	
	3학년	33	4.09	
	4학년	3	3.33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1학년은 평균 44.1점(표준편차=7.21)이었고, 2학년은 평균 42.5점(표준편차=8.55)이었다. 그리고 3학년은 평균 41.5점(표준편차=6.88)이었고, 4학년은 평균 41.8점(표준편차=9.68)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일 도움이 되었고, 반면에 첫째, **자격증 취득** 둘째, **대인관계 기술** 순으로 가장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제일 높게 나왔으나 장애 대학생들에게는 취업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장애유형별)과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7> 장애 유형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변수		N	M(S.D)	F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	시각장애	4	4.75(.50)	.910
	지체 · 뇌병변장애	22	3.73(3.73)	
	청각 · 언어장애	55	4.04(1.36)	
	지적 · 자폐성장애	12	4.25(1.03)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은 평균 4.75점(표준편차=.50)이었고, 지체 ·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은 평균 3.73(표준편차 = 3.73)이었다. 또한 청각 ·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은 평균 4.04점(표준편차 =1.36)이었고, 지적 ·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은 평균 4.25점(표준편차=1.03)이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의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에서 독립표본 T 검정의 바탕(Independent t-test)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일반적 특성(장애 정도)과 진로 스트레스 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과 아래와 같다.

<표 78> 장애 정도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의 차이

변수		N	M(S.D)	t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만족도	중증	70	4.13(1.16)	1.419
	경증	19	3.58(1.57)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만족도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은 평균 4.13 점(표준편차=1.16)이었고, 경증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대학생은 평균 3.58(1.57)이었다.

그중에서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대학생의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V. 논의 및 결론

### 1.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내가 미래에 무슨 일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라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으나 취업 준비할 때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는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라는 응답이 53.8%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장애 대학생들이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취업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자격증 취득’에 관한 프로그램의 응답이 64.0%으로 제일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박람회’에 관한 프로그램의 응답이 52.8%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해 가장 걱정되는 점은 ‘직장 상사 및 동료 간의 관계 어려움’이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대인관계 기술’에 관한 프로그램도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의견이 많았다.

**셋째**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진로 스트레스가 30.89% 응답하였으나 비참여자의 진로 스트레스는 90.17%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보다 비참여자의 진로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 2. 제언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했지만, 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 대학생들은 혼자 취업 준비할 때 취업에 필요한 정보 없이 취업을 준비하려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해 강사님과 1:1로 지도를 받아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1 진로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원하는 곳에 취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모색하는 방법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해 자격증 취득, 대인관계 기술, 이력서 작성하는 법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장애 대학생들은 자격증 취득, 대인관계 기술,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 제일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나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부재”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장애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대인관계 기술, 이력서 작성에 관한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설해야 하고, 더 활성화한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취업지원프로그램 비참여자의 진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성(후기)을 SNS,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비참여자가 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보다 비참여자가 진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이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비참여자는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멘토링, 취업특강, 자격증 취득 등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3. 의의와 한계점

현재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논문의 의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을 하였다.

본 연구의 논문의 한계점은 아래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 조사로만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양적 조사를 통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하고, 분석도 하였다. 하지만 장애 대학생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설문조사가 있지만, 더 많은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질적 조사인데, 본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작성할 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했다라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둘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참고문헌 및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하고 비참여자에 관한 문항을 만들었지만, 그 무엇보다 비참여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왜 참여 안 하는지를 대해 더 구체적으로 깊게 연구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대학 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는 서로 간의 분명히 크게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전국의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장애 유형별 중에 분류하자면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제외하고, 다양한 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은 설문조사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 : 장애 대학생 진로 · 취업 지원 사업 개요
- 김민아, 윤가애, 성지민, 강은선(2022). 신체장애 대학생의 진로 선택 및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p160 ~ p161, p169 ~ p177
- 점자책 · 수화 통역사 태부족 입시 관문 뚫고도 학업 포기 일쭙 [뉴스 인사이트 - 학습권 침해받는 장애 대학생들] (세계일보)
- 김라경, 이미선, 김영애, 이명주, 강종구(2014). 장애 대학생들의 취업 현황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p264 ~ 265
- 김진영, 청원철(2014), 장애 대학생의 진로 스트레스가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p251
- 이옥인(2014), 장애 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인식 비교 p314
- 강병호, 원종례(2017), 장애 대학생의 취업실태 분석 및 관련 정책 방향 도출 p14(서론, p1 장애 대학생 취업실태 및 요구, p34)
- 박희락(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 태도 성숙의 예측 : 진로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 공영환(2018) 장애 대학생의 취업 준비 경험 탐색 p69
- 장애 대학생 고등교육, 국가가 총괄 ... '특수교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인디고의 눈)

## 부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장)에 의거 응답 기관 및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 되오니 정확한 자료가 수집 될 수 있도록 귀하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약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 관련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주세요.

Q1. 귀하는 현재 어디 지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 ① 경기도
- ② 서울특별시
- ③ 강원도
- ④ 충청남도
- ⑤ 충청북도
- ⑥ 경상남도
- ⑦ 전라남도
- ⑧ 광주광역시
- ⑨ 경상북도
- ⑩ 제주특별자치도
- ⑪ 대구광역시
- ⑫ 울산광역시
- ⑬ 부산광역시
- ⑭ 세종특별자치시

- ⑮ 대전광역시
- ⑯ 인천광역시
- ⑰ 전라북도

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Q3. 귀하는 어떤 장애인 갖고 있습니까?

- ① 시각장애
- ② 지체 장애
- ③ 청각장애
- ④ 뇌병변 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지적장애
- ⑦ 자폐성 장애
- ⑧ 기타 (            )

Q4. 귀하의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중증
- ② 경증

Q5. 귀하는 어디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 ① 전문대학교
- ② 4년제 대학교

Q6.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 ② 2학년
- ③ 3학년
- ④ 4학년

Q7. 귀하는 어떤 전공입니까?

- ① 인문 사회계열
- ② 공학계열
- ③ 예체능 계열
- ④ 자연과학 계열

- ⑤ 가정 계열
- ⑥ 농수산학계열
- ⑦ 교육계열
- ⑧ 기타 (            )

Q8. 귀하는 진로를 결정하십니까?

- ① 아직 모르겠음
- ② 진로를 결정 못 했지만, 걱정이 되지 않음
- ③ 진로를 결정했지만, 불안함.
- ④ 진로를 결정했지만, 많은 정보가 필요함.
- ⑤ 기타 (            )

II. 다음은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주시고, 기타 사항과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9. 귀하는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9-1로 이동
- ② 아니요 → 9-2로 이동

9-1 (문항 9에서 ①에 해당), 귀하는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어떻게 아셨습니까?

- ① 인터넷 (블로그, 뉴스)
- ② 학교 게시판 홍보
- ③ SNS (인스타, 페이스북)
- ④ 기타 ( )

9-2 (문항 9에서 ②에 해당), 귀하는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권역별 거점 대학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무관심
- ② 학교 게시판 홍보 부족
- ③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없음
- ④ 기타 ( )

Ⅲ. 다음은 귀하의 '대학 취업 준비 과정'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시고, 기타 사항과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귀하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계획입니까?

- ① 예 → 10-1로 이동
- ② 아니요 → 10-2로 이동

10-1 (문항 10에서 ①에 해당), 귀하는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 직종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 ① 보호작업장
- ② 경영 관리직(회계, 재무 등)
- ③ 사회복지직
- ④ 전문직(의사, 프리랜서, 변호사 등)
- ⑤ 사무직(증권 사무원, 대학 행정 조교 등)
- ⑥ 서비스직(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
- ⑦ 공무원
- ⑧ 창업
- ⑨ 기타 (        )

10-2 (문항 10에서 ②에 해당), 귀하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낮은 환경 두려움
- ② 비장애인과 차별
- ③ 업무처리 부담감
- ④ 대인관계 어려움
- ⑤ 직장 필요 없음
- ⑥ 기타 (        )

Q11. 귀하는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취업할 계획입니까?

- ① 예 → 11-1로 이동
- ② 아니요 → 11-2로 이동

11-1(문항 11에서 ①에 해당), 귀하는 대학교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어느 직종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 ① 전공 공무원
- ② 전공 현장직
- ③ 전공 사무직

- ④ 전공 서비스직
- ⑤ 기타 (        )

11-2 (문항 11에서 ②에 해당), 귀하는 전공을 살리지 않고 취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내 적성과 맞지 않음
- ② 전공 분야의 미래, 비전이 밝지 않음
- ③ 전공 지식을 충분히 쌓지 못함
- ④ 취업을 빨리 해야 함
- ⑤ 기타 (        )

Q12.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십니까?

- ① 지인 소개
-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③ 장애 학생 지원센터 취업 정보 (워크넷, 장애인 고용 포털 등)
- ④ 취업 관련된 유튜브
- ⑤ 기타 (        )

Q13. 귀하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자격증 취득 어려움
- ② 이력서 작성 어려움
- ③ 취업 정보 부족
- ④ 적성 찾기 어려움
- ⑤ 기타 (        )

Q14. 귀하는 취업하기 위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낮은 임금
- ② 직장 상사 및 동료 간 관계의 어려움
- ③ 장애 및 건강상의 이유
- ④ 근무 환경
- ⑤ 기타 (        )



Q16. 귀하는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해당 없음
1	장애 학생 기업 연수						
2	자격증 취득						
3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4	취업특강						
5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6	장애 학생 자기 이해 프로그램 (역량 강화, 진로 설정)						
7	진로 · 취업 관련된 상담						
8	멘토링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Q17. 귀하는 다음의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취업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었다	거의 필요 없다	보통 이다	약간 필요하다.	필요 하다
1	취업캠프					
2	취업 성공 패키지					
3	장애 학생 채용설명회 및 취업박람회					
4	취업특강					
5	자기표현 역량 증진 프로그램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취업탐방단					
7	장애 학생 기업 연수					
8	대인관계 기술					
9	자격증 취득					

Q18. 귀하는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보통 이다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Q19. 귀하는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기타 (                    )

Q20 장애인 편의 지원 여부의 만족도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 표시해주세요.

		매우 불만족했다	불만족했다	보통 이다	만족했다	매우 만족했다.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장애인 편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 귀하는 향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Q22 귀하는 추후 대학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로 참여하고 싶습니까?

- ①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 ② 자기 이해(가치관, 강점 탐색)
- ③ 적성 탐색을 위한 심리 검사
- ④ 자기 표현력 향상
- ⑤ 기타 (      )

V. 다음은 '진로 스트레스 척도' 관련된 검사입니다. 20문항이고,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주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2. 취업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3.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서 고민이다.					
4. 내 적성에 맞는 진로가 뭔지 몰라서 답답하다.					
5. 취업 준비를 위해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스트레스이다.					
6. 내 의지와는 반대로 부모님이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시는 것이 불만이다.					
7. 현재 계획 중인 진로가 내가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 힘들다.					
8.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9. 원하는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는다.					
10.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11.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12. 나의 적성이 내가 희망하는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이다.					
13. 취업을 위한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14.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15. 내가 계획하는 진로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민이다.					
16. 진로 준비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는지에 잘 몰라서 답답하다.					
17.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막막하다.					
18. 진로에 대비하여 어떤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19. 진로와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다.					
20.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